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혜경 · 김남송¹

전주비전대학교 치위생과 · ¹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The effects of self-esteem on job-seeking efficacy of dental hygiene students

Hye-Kyung Lee · Nam-Song Kim¹

Dept. of Dental Hygiene, University of Jeonju-vision

¹*Dept. of Preventive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elf-esteem and job-seeking efficacy of dental hygiene students in an attempt to provide some information on career guidance, counseling and the development of employment programs by colleges, as self-esteem seemed to be one of integral variables to affect job-seeking efficacy.

Methods :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the dental hygiene students in three different colleges in South and North Jeolla Provinces. After a self-administered survey was conducted, the answer sheets from 562 respondents were analyzed by the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2.0.

Results : 1. The students investigated got a mean of 2.43 in self-esteem, which was not a high score. The sophomores had a better self-esteem than the freshmen and juniors, and the gaps among the respondents in each subfactor of self-esteem were significant($p^* < 0.01$, $p^{**} < 0.05$). 2. The students got a mean of 3.12 in overall job-seeking efficacy,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m in each subfactor of job-seeking efficacy($p^* < 0.01$). 3. The freshmen were ahead of the sophomores and juniors in job-seeking efficacy, and the gaps between the former and the latter were significant($p^* < 0.01$). 4.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perceived self-esteem and job-seeking efficacy of the students. A higher self-esteem led to a better job-seeking efficacy($p < 0.01$).

Conclusions : The above-mentioned findings illustrated that a higher self-esteem had a more positive effect on job-seeking efficacy.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programs geared toward boosting the self-esteem of dental hygiene students is required,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provide quality self-esteem programs for students to plan and prepare for their future, to make the right career choice, to improve their vocational adjustment, to keep pursuing self-development and to build the right values. (J Korean Soc Dent Hygiene 2012;12(2):327-334)

Keywords : job-seeking efficacy, self-esteem

색인 : 구직효능감, 자아존중감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며,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1. 서론

자아개념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개념으로 자신의 경험들과 함께 형성되며, 스스로에 대한 가치부여를 필요로 하며, 자아존중감은 자아이론에 있어서 개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적·평가적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심리적 경향으로서 일련의 인생의 경험에서 얻어진 자기에 대한 느낌, 또는 자기의 가치로움에 따라 형성되는 자기가치감으로 이해되고 있다¹⁾. 또한 자아존중감은 인생 초기의 가족과의 경험 속에서 형성되며 일생동안 부모, 형제, 동료, 선생님들로부터 중요한 영향이 되는 변수와 신체, 경험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는 내적 자기상으로 긍정적인 수도 부정적인 수도 있다²⁾.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와 자기존경의 정도에 따른 판단으로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개인의 사적인 판단으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거나 낮아지게 된다. 이는 자기에 대한 정서를 유발하고 지속시키므로, 심리적인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역이 되며,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은 바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준거가 된다. 특히 청소년기와 성인기초에 발달적으로 적절한 직업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존중감은 다시 직업적 자아정체감으로 발달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선택과 관련해서 청소년기부터 대학생 시기에 이르기까지의 직업적 자아정체감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변인인 일관성과 안정성에 대해서는 Korman³⁾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직업을 안정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인지적 균형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욕구와 무관한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인지적 균형을 불규칙적으로 유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Super⁴⁾의 진로발달과정에 대한 정형화된 이론으로 변화되면서, 진로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진로선택의 문제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부정확한 진로태도의 영향으로 인해 진로에 대한 불안이 높게 되며, 이로 인해 대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능감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은 진로태도의 올바른 정립으로 인해 직업선택에 따른 긍정적인 자기효능감 역시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의 유래가 된 '구직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흔히 구직효능감이라 하며, 이는 구직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구직에 대한 태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이며, 이런 구직효능감은 구직행동에서 성공적인 구직활동을 해낼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을 의미한다⁵⁾. 구직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에 따른 구직효능감 강화를 위한 Wanberg 등⁵⁾과 장⁶⁾의 연구에서 구직효능은 진로결정에 대한 개인의 구직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낮은 구직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구직을 하지 못하고 비효과적 구직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전문직으로 변화해가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치과위생사로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개인에게 맞는 학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치위생학에 확신을 가지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⁷⁾.

그러나 현재까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취업(구직)관리와 관련해서는 전공 교육 만족도 및 직업관이나 취업 및 직업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연구, 해외취업에 관한 의식, 취업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⁸⁾,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이나 구직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구직효능감에 중요한 변인이라고 보고, 이 결과를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상담에 보충적 자료로 제공하고, 취업 관련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연구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1년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전라남·북도 지역에 소재한 3개 대학(교)의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650부를 배부해 이 중 불안 전하게 응답한 88부를 제외한 562부(86.5%)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도구로는 Hudson⁹⁾이 개발한 임상측정 프로그램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 척도(Index of Self-esteem)를 이용하였다. Hudson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내담자의 자아존중감의 문제정도, 심각성 혹은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개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12개 문항은 역문항으로 역산하여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5점)'으로 한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2.2.2. 구직효능감 척도

구직효능감 척도는 Michigan 대학의 사회조사연구소(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에서 제작한 Jobs II Survey(Vinokur, Price & Caplan)¹⁰⁾의 6문항과 Kanfer와 Hulin¹¹⁾이 구직효능감 측정을 위해 사용한 4문항 중 Michigan 대학의 사회조사연구소(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에서 사용한 척도와 중복되지 않는 2문항을 덧붙여 총 8문항으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2.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학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의 각 문항에 대한 지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One-way ANOVA 검정을 적용하였다. 또한 문항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으며,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성적

3.1. 측정도구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자아존중감 0.848(25문항), 구직효능감 0.946(8문항)으로 조사되었다.

3.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표 1〉과 같다. 학년은 1학년 171명(30.4%), 2학년 192명(34.2%), 3학년 199명(35.4%)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은 남학생 3명(0.5%), 여학생 559명(99.4%)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구 분		빈도(N)	백분율(%)
학 년	1학년	171	30.4
	2학년	192	34.2
	3학년	199	35.4
성 별	남	3	0.5
	여	559	99.4
합계		562	100

3.3.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자아존중감의 전체 항목의 평균은 2.43으로 그리 높지 않게 조사되었고, 2학년이 1·3학년과 비교하여 약간 높았으며, 각 항목에 대한 대상자들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항목 중 '나는 내가 훌륭한 유머 감각을 가졌다고 생각한다'가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따돌림을 더 많이 받는다고 느낀다'가 1.4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학년 학생들은 '나는 내가 매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항목이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는 내가 추하다고 느낀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3학년 학생들은 '나는 친구들이 나를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고 생각한다' 항목이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따돌림을 더 많이 받는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Duncan a,b 사후검정법 이용

항목내용	학년(M±SD)				t or F(p)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사람들이 나를 잘 안다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낀다	1.74±0.76 ^b	2.05±0.74 ^a	2.01±0.62 ^a	1.94±0.72	9.994 (0.000*)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는 서로가 훨씬 더 잘 지낸다고 느낀다	2.07±0.89 ^{bc}	2.55±0.59 ^{ab}	2.28±0.67 ^{ac}	2.31±0.75	20.507 (0.000*)
나는 내가 멋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f	2.91±0.73 ^a	2.74±0.60 ^b	2.61±0.73 ^b	2.74±0.70	8.645 (0.000*)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느낀다 ^f	2.72±0.61	2.66±0.56	2.62±0.67	2.67±0.61	1.137 (0.321**)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나는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느낀다 ^f	1.94±0.85 ^b	2.33±0.60 ^a	2.37±0.82 ^a	2.23±0.78	17.306 (0.000*)
나는 내가 매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f	3.06±0.69 ^a	3.01±0.83 ^a	2.57±0.88 ^b	2.87±0.84	20.673 (0.000*)
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고 생각한다 ^f	2.80±0.74 ^{ab}	2.14±0.80 ^{bc}	2.57±0.81 ^{ac}	2.49±0.83	32.794 (0.000*)
나는 자신감이 좀 더 필요하다고 느낀다	2.54±1.06	2.60±1.18	2.73±1.10	2.63±1.11	1.438 (0.238**)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매우 신경이 쓰인다	2.50±0.65 ^a	2.29±0.86 ^b	2.23±0.65 ^b	2.33±0.74	7.136 (0.001**)
나는 내가 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50±0.91 ^{ac}	2.81±0.77 ^{ab}	2.28±1.12 ^{bc}	2.53±0.97	15.412 (0.000*)
나는 내가 추하다고 느낀다	1.87±0.68 ^a	1.90±0.68 ^a	1.70±0.79 ^b	1.82±0.73	4.314 (0.014**)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인생을 즐긴다고 느낀다	2.49±0.71 ^b	2.48±0.56 ^b	2.65±0.76 ^a	2.54±0.68	3.775 (0.024**)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든다고 느낀다	2.29±0.68 ^a	2.16±0.83 ^a	1.82±0.77 ^b	2.08±0.79	18.863 (0.000*)
나는 친구들이 나를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고 생각한다 ^f	2.82±0.71 ^{ac}	2.27±0.93 ^{bc}	3.24±1.26 ^{ab}	2.78±1.08	46.340 (0.000*)
나는 내가 훌륭한 유머 감각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f	3.13±0.79 ^a	2.78±0.87 ^b	2.92±0.77 ^b	2.94±0.83	8.516 (0.000*)
낯선 사람과 있을 때 나는 나 자신을 매우 의식하는 것 같다	2.33±0.75 ^b	2.66±0.68 ^a	2.59±0.75 ^a	2.54±0.74	9.952 (0.000*)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처지가 좋았다면 나도 그들처럼 헤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23±1.04 ^b	2.60±0.70 ^a	2.75±0.67 ^a	2.54±0.84	19.856 (0.000*)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 좋은 시간을 보낸다고 느낀다 ^f	2.56±0.58 ^{bc}	2.86±0.70 ^{ab}	2.70±0.70 ^{ac}	2.71±0.68	9.851 (0.000*)
나는 밖에 나가면 외톨이 같이 느낀다	1.68±0.77 ^b	1.93±0.81 ^a	1.77±0.80 ^b	1.80±0.80	4.636 (0.010**)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따돌림을 더 많이 받는다고 느낀다	1.47±0.64 ^{bc}	2.03±0.93 ^{ab}	1.66±0.88 ^{ac}	1.73±0.87	21.689 (0.000*)
나는 내가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낀다 ^f	2.58±0.63 ^a	2.32±0.52 ^b	2.57±0.72 ^a	2.49±0.64	10.378 (0.000*)
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좋아한다고 느낀다 ^f	2.73±0.57	2.70±0.51	2.61±0.69	2.68±0.60	1.810 (0.165**)
나는 내가 호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f	2.78±0.62 ^{ab}	2.27±0.49 ^{bc}	2.60±0.68 ^{ac}	2.54±0.64	34.919 (0.000*)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보이게 될까 두렵다	1.78±0.75 ^b	2.34±0.88 ^a	1.88±0.78 ^b	2.01±0.84	25.028 (0.000*)
내 친구들은 나를 매우 높게 평가한다고 생각한다 ^f	3.04±0.57 ^{ab}	2.48±0.63 ^{bc}	2.84±0.71 ^{ac}	2.78±0.68	35.082 (0.000*)
	2.42±0.33	2.44±0.39	2.42±0.37	2.43±0.37	

p* < .01, p** < .05, ^f 역문항

고 느낀다' 항목이 1.66 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3.4. 연구대상자의 구직효능감

연구대상자의 구직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구직효능감의 전체 항목 평균은 3.12로 조사되었고 각 항목에 대해 대상자들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그리고, 1학년 학생들의 평균은 3.64로 조사되어 2·3학년보다 구직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각 항목에 대한 평균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2학년 학생들은 1·3학년보다 구직효능감의 전체 평균이 2.63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으며, '취업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주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할 자신이 있다' 와 '구인자에게 내가 적합한 사람이라고 설득할 자신이 있다' 항목은 2.22로 특히나 더욱 낮게 조사되었다. 3학년 학생들은 '구직 기회가 있을 만한 곳을 발견할 자신이 있다' 항목이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

업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주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할 자신이 있다' 는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3.5.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의 관계

연구대상자들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구직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구직효능감도 높게 나타났으며, 구직효능감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설명력은 22.6%였다(<표 4>).

4. 총괄 및 고안

오늘날 현대사회는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산업사회로서 각 분야별로 분업화된 전문

표 3. 연구대상자의 구직효능감

†Duncan a,b 사후검정법 이용

항목내용	학년(M±SD)				t or F(p)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취업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주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할 자신이 있다	3.51±1.19 ^{ab}	2.22±0.93 ^{bc}	2.91±0.79 ^{ac}	2.86±1.10	81.080 (0.000*)
구인자에게 내가 적합한 사람이라고 설득할 자신이 있다	3.58±1.08 ^{ab}	2.22±0.93 ^{bc}	3.16±0.89 ^{ac}	2.97±1.11	95.351 (0.000*)
나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이력서를 작성할 자신이 있다	3.66±1.06 ^{ab}	2.48±1.16 ^{bc}	3.23±0.91 ^{ac}	3.10±1.15	59.955 (0.000*)
구직 기회가 있을 만한 곳을 발견할 자신이 있다	3.80±1.02 ^{ab}	2.86±0.90 ^{bc}	3.24±0.73 ^{ac}	3.28±0.96	51.878 (0.000*)
직업을 구하는데 이용되어 질 수 있는 나의 기술, 지식, 자격증 목록을 작성할 자신이 있다	3.50±1.12 ^a	3.19±0.68 ^b	3.17±0.70 ^b	3.28±0.86	8.290 (0.000*)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종합하여 볼 때, 성공적인 취업에 자신이 있다	3.57±1.13 ^{ab}	2.79±0.65 ^{bc}	3.20±0.90 ^{ac}	3.17±0.96	33.237 (0.000*)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종류의 일에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할 자신이 있다	3.63±1.12 ^{ab}	2.52±0.67 ^{bc}	3.04±0.73 ^{ac}	3.04±0.96	77.173 (0.000*)
가까운 친척, 친구 또는 취업 관련기관을 통해 취업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데 자신이 있다	3.87±1.04 ^{ab}	2.78±0.96 ^{bc}	3.17±0.73 ^{ac}	3.25±1.01	65.450 (0.000*)
	3.64±0.95	2.63±0.74	3.14±0.61	3.12±0.87	

p* < .01

표 4.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의 관계

구 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된 회귀계수	t값	p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의 관계	3.053	0.016	-0.475	60.119	0.000
$R^2=0.226, F=163.267, p^* < 0.01$					

기술을 소지한 전문직종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치과위생사라는 직업도 치과보건의료기관이라는 특수한 조직에 종사하면서 국민구강보건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¹²⁾.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구강보건진료를 생산하는 요소 중에서도 구강보건인력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¹³⁾.

따라서 구강보건인력 중의 하나인 치과위생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치과위생사 스스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함으로써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¹⁴⁾. 그러나 201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장래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취업에 자신감이 없고, 졸업을 연기하고 높은 휴학률을 보이고 있는게 현실이다¹⁵⁾.

이에 본 연구는 미래의 치과위생사가 인생의 경험에서 얻어진 자기에 대한 느낌 및 가치감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자아존중감을 갖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상담에 보충적 자료로서 활용하고, 취업관련 프로그램에 연계함으로써 구직효능감을 향상시키고자 연구하였으며, 연구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자아존중감 0.848, 구직효능감 0.946으로 조사되어 매우 신뢰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항목에 대한 전체 평균은 2.43으로 그리 높지 않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김 등¹⁶⁾의 2.98보다는 낮은 수치였다. 이는 치위생 교육에서 학생들의 자아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아직 구축되지 못해 학생 상담 및 지도에 있어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실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차후에는 치위생(학)과 교육에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학년 학생들이 1·3학년과 비교하여 자아존중감 항목에 대한 평균이 약간 높게 조사되었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1학년과 3학년 학생들이 2학년 학생들보다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 및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임상실습 후 직무에 대한 낮은 만족도 때문에 자아

존중감이 낮게 평가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2학년 학생들은 대학생활에서 주변 환경 및 인물 간의 상호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Williams와 Betz¹⁷⁾의 연구에서 설명하듯이 인간이 처한 환경 특히, 친구, 가족, 교수 등의 인물에의 영향을 받아 자아존중감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대학생들과 장시간 함께하는 교수 및 친구는 대학 내에서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자아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연구 대상자들의 구직효능감 항목의 전체 평균은 3.12로 조사되었고 각 항목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김¹⁸⁾의 연구 4.12와 비교하여 낮은 수치였고, 치위생과 학생들이 다른 학과와 비교하여 구직에 대한 노력 및 관심부족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구직효능감이 낮게 조사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과거와 비교하여 현재 해마다 배출되는 치과위생사의 수는 5년 안에 포화상태 아니 그 이상을 넘어나 취업난을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치위생(학)과에서는 학생들의 구직효능감을 높여 앞으로 다가올 취업난을 위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학년 학생들은 2·3학년 학생과 비교하여 구직효능감이 높게 조사되었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이는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간 판보다는 적성을 살리고,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2·3년제 대학을 선호하여 바로 대학에 진학한 1학년 학생들의 구직효능감이 2·3학년 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장차 취업 일선에 나아가야 할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의 구직효능감이 높지 않게 나타난 결과를 볼 때 대상자들의 구직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취업 프로그램 및 가이드를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들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의 관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구직효능감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고($p = .000$), 이는 김 등¹⁶⁾과 장⁶⁾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것은 직업 선택에 있어 자신의 삶의 목표가 뚜렷할 때 진로의 태도와 행동방향 설정이 명확하고, 구직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과 탁¹⁹⁾, 김과 이²⁰⁾도 지

업선택에 있어서 자신감의 정도와 자신의 진로태도에 따라서 구직에 따른 자기효능감을 좀 더 정확히 예측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구직 효능감에 있어 학생들의 좀 더 자신 있는 구직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한과 장²¹⁾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의 관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이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구직효능감에 자아존중감 변수가 많은 영향을 주게 됨을 알 수 있었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구직효능감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일부 대학의 치위생과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기 때문에 전체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적용시키기에 문제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확대와 여러 지역에서 표본이 표출되고, 타학과와 상호 연계하여 종·횡단적인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진로교육에 구체적인 현안을 제시하고, 취업과 관련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구직효능감에 중요한 변인이라고 보고 이를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상담에 보충적 자료로 제공하고, 취업관련 대학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기초 자료로써 사용하고자, 전라남·북도 지역에 소재한 3개 대학(교)의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562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항목에 대한 전체 평균은 2.43으로 그리 높지 않게 조사되었고, 2학년이 1·3학년과 비교하여 약간 높았으며, 각 항목에 대한 대상자들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2. 대상자들의 구직효능감 항목의 전체 평균은 3.12로 조사되었고 각 항목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3. 1학년 학생들은 2·3학년 학생과 비교하여 구직 효능감이 높게 조사되었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4. 연구대상자들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과 구직효능감의 관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구직효능감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p < 0.01$).

이상의 결과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구직효능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기관은 학생들이 진로를 올바르게 계획, 준비, 선택하도록 도와주고 선택된 직업에 잘 적응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김화자. 자아존중감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원여자대학 논문집 1997;23:5-20.
2. 김태숙, 오경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충남의대잡지 1997;21(1):184-195.
3. Korman AK. Self-esteem as a moderator in vocational choice: In-ternal-extens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970;53:188-192.
4. Super DE.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The American Psychologist. 1953;8:185-190.
5. Wanberg CR, Watt J, Rumsey DJ. Individuals without Jobs: An Empirical study of Job-seeking Behavior and Reemploy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996;81(1):76-87.
6. 장성은.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전문대학생의 구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수원:경기

- 대학교 대학원:2006.
7. 이정화, 김지화. 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직업선택도 유형 및 학업능력과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학회지 2010;10(1):173-183.
 8. 최하나, 이수영, 조영식. 학사과정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의 진로계획과 직업관. 치위생과학회 2011;11(1):7-14.
 9. Hudson WW. The Clinical measurement package: a field manual. Homewood, Illinois:The Dorsey Press:1982:92-108.
 10. Vinokur A, Price RH, Caplan RD. Hard Times and Hurtful Partners: How Financial strain Affects Depress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Unemployed Persons and Their Spou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6;71(1):66-179.
 11. Kanfer A, Hulin. Individual Difference in Successful Job Searches Following Lay-off, Personnel Psychology 1985;38:835-840.
 12. 한수진, 이선미, 임미희. 예비치과위생사의 취업에 관한 의식 조사. 한국치위생학회지 2007;7(4): 583-594.
 13. 문혁수. 치과의사수급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대구강보건의학회지 1994;18(1):339-366.
 14. 정재연. 치과위생사의 이직 및 직무활동에 관한 조사 연구. 치과연구 1998;43(2):47-57.
 15. 학생생활연구소. 이화여대 학생상담센터 활동보고서. 이화여자대학상담센터 2000;34(1):1-13.
 16. 김정희, 홍송희, 김창희, 남수현. 학제에 따른 치위생(학)과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전문직업관에 관한 연구. 치위생과학회지 2011;11(6):527-533.
 17. Williams TW, Betz NE. The relationship among occupational and task-specific measures of career self-efficac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994;4:342-351.
 18. 김대진. 자아존중감 및 진로태도성숙이 전문대학생의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 부산:경성대학교 대학원:2007.
 19. 김태은, 탁진국. 재취업 질의 선행변인과 결과변인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산업 및 조직 2007;20(1):57-80.
 20. 김수원, 윤지은. 전문대학생의 직업탐색활동이 구직 결정에 미치는 영향. 직업과 고용서비스 연구. 2009;5(1):1-24.
 21. 한지현, 장재윤. 남성 또는 여성중심적 직업을 희망하는 여대생들의 개인특성 및 구직행태에서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산업 및 조직 2005;18(3): 585-609.